第 18 號【月刊】 1987. 8.15.

山林經營会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社)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 5街 134-58 ☎ 923-4372

山 林 과 水 害

會長 韓 榮 錫

今年水災는 몇10年만에 한번꼴로 당하는 大慘禍였다.

颱風셀마호가 南海岸一帶를 휩쓸어 水風害를 크게 입히드니 이어 中部地方에 내린 豪雨는 錦江을 크게 氾濫시켜 公州·靑陽·扶餘·舒川·群山一帶를 黃土물 바다로 채우고 首都圈에 다시내린 暴雨는 서울과 仁川地域을 뒤흔들었으며 死亡·失踪者600餘名의 人命被害를 내고 山沙汰·農耕地流失·農作物掃滅·漁船破損 流失·養殖場攪亂등 農水産 重要地域을 廢虛化시켰으며 堤防·道路·橋梁·電氣通信網破壞등 公益施設 痲痺와 住宅·工場破損 浸水로 莫重한 財産被害를 입혔다.

무려 5,000餘億원의 經濟損失이라 한다.

이에 대한 社會輿論은 日氣豫報를 잘못하였느니, 水利事業이 잘못되었느니, 低地帶排水管理公務員이 職務怠慢을 하였느니 하며 政府施策 잘못과 公務員의 職務不誠實을 탓하였다.

그리고 政府는 災害補償을 위하여 國家豫算을 更正하느니, 氣象觀測裝備刷新과 國際尖端科學 測定機構에 加入을 하느니, 大江流入 河川에 洪水調節 댐을 建設하느니 하고 對策樹立에 腐心하고 있는 것으로 報道되어 왔든 바,

급기야 國會가 召集되어 같은 詰責의 攻防과 結局은 被害補償·復舊事業에 관한 投融資確定 이에 隨伴하는 國家豫算更正이 있을 것이다.

이로써 災害損失은 돌아올 길 없이 擧論되는 方向으로 收拾의 役事가 벌어지며 原狀復舊는 잘되어 가리라

그러나 우리 山林經營人들은 社會와 政府當局이 天然災害對策에 있어서 山林의 重要性을 直視하지 못하고 있음을 哀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4～5年 週期로 旱災와 水災가 반드시 크게 찾아든다. 이때마다 社會와 政府는 災害原因을 水利事業未備로만 돌리어 水利事業一邊倒로 치닫는다.

그러나 水利事業만으로는 旱災·水災를 完全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先進國일 수록 山林과 水理를 不可分의 相關關係로 보아 水利事業 못지 않은 山林投資를 하고 있다.

山林에 砂防施業이 充實하고 隆盛한 樹林에 育林을 잘하면 滲水機能發達로 山林의 降水를 大略 即時 蒸發 25 %, 表面流出 25 %, 地下滲水가 50 %나 되는 것으로서 15 %를 樹林이 吸水하고 35 %가 貯留된다. 貯留水는 水平을 따라 徐徐히 河川으로 흘러나려 가므로 山林滲水는 洪水阻止機能을 發揮하게 되며 四季節 河川流水를 豐盛히 한다. 또 河床이 低下되어 排水가 잘 된다. 反對로 山이 벌거벗은 裸地에서는 地下浸水가 5 %에 그치며 40 %가 即時蒸發 · 55 %가 表面流出되는 것으로 結局 山林 부실은 洪水를 誘發하고 黃土水를 흘리며 河川渴水를 招來하는 것이다. 또 河床을 높이어 排水에 困難을 준다.

이의 根據는 日本調査分析資料에 의한 것이며 日本의 調査淵源은 1900年代初 스위스에서 萬國林業試驗場長會議가 열여 降水의 山林流出關係를 調査試驗키로 하고 各國이 地勢地形이 똑같은 두地點이 있는 곳을 골라서 한쪽은 樹木이 융성한대로 두고, 다른 한쪽은 樹木을 完伐하여 붉은 山을(恒時) 만들어 流水狀態를 80年間을 계속 觀察한 바 지금에도 거의 같은 水準의 流水狀態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各國의 地殼 地表差異가 若干의 數値差異를 보일 뿐이다.

한편 우리의 山沙汰·土砂流出關係를 살펴보면 砂防事業消極과 農耕地의 過度한 傾斜로 山沙汰·土砂流出이 심하다. 이번 黃土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砂防問題를 輕視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日本등 山林이 울창한 先進國은 砂防事業에 徹底를 기하여 아무리 큰 비가 오더라도 黃土물 流水는 거의 없으며 하얀 (若干 濁한) 물이 흐른다. 우리는 農耕地水平化와 溪間砂防·土砂流出危險地에 保安砂防을 徹底히 補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黃土水는 바로 壤土가 流失되는 것으로 地力瘠薄을 自招하는 것이다. 또 防風林에 無關心으로 風害가 심하다.

이상으로 山林의 天然災害防止役割을 論했거니와 가장 重要한 問題는 多目的 댐등 水資源貯藏問題다. 多目的댐등이 洪水調節機能이 絶大하여 이번 水災에도 이의 機能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큰 慘禍를 이르켰을까? 萬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더 큰 降水가 있을 때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물과 물의 衝突은 可恐할 에너지로 可變되어 廣面한 低地帶 (人口密集·産業地域) 를 無人之境으로 휩쓸 것이다. 金剛山댐 : 平和댐 對應建設을 왜 이르키고 있는가가 雄辯으로 말 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山林建設은 焦眉의 急務이다.

또한 우리는 山林不實로 莫大한 量의 木材와 펄프를 導入하고 있지 않는가. 2000年代에 들어서면 世界는 木材饑饉時代로 접어들어 木材戰爭 (經濟) 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先賢들은 山林盛衰 = 國力盛衰라고 銘訓을 남기고 있지 않은가.

爲政者들은 山林의 哲理를 따라 國家永遠의 繁榮을 누릴 重林政策을 遂行해 나가야 遺漏없는 先進祖國을 創造할 수 있을 것이다. 끝.

林業 振興 促進地域 指定開發 — 山林廳

200萬ha 指定 — 每年 20萬ha 集中開發

山林廳은 山地資源化를 促進하고 活力있는 山村 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200萬ha를 林業 振興 促進地域으로 指定하고 每年 20萬ha씩 集中 開發키로 했다.

山林廳은 지금까지 全國的으로 分散 投資하던 方式을 振興 促進地域에 集中 投資키로 하고 그 對象地域은 山林面積이 70% 以上 차지하는 他産業 開發 不振 地域으로 하여 2000年代에는 國內材 生産量의 70%를 供給하는 國産材 安定供給 基地를 造成토록 할 計劃이다.

林業 振興 促進地域에 대하여는 韓獨 林業 協力事業에 의하여 示範 事業으로 推進中인 마을 單位 山主 協業体 經營方法을 擴大 適用하고 山主가 作成하던 經營計劃을 山主 意思를 反映 道知事가 作成토록 하는 한편 木材生産 爲主 計劃에서 山林景觀을 利用한 所得事業등을 包含한 多角的인 計劃을 樹立, 年次別 事業은 山主協業体에서 自律的으로 決定하여 實行하고 施業申告 畢證 交付는 省略하는 등 行政節次를 簡素化 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林分形質과 蓄積을 增强시키기 위하여 不良木과 被害木의 樹種更新으로 經濟林 造成을 擴大하고 淘汰 또는 列式間伐 등 새로운 間伐法을 開發 普及하여 間伐 施業을 促進토록 하고 林道施設을 擴張, 綜合的인 林道網을 構築하여 林業技能人 作業團의 機械化 作業으로 勞動生産性을 提高하고 林産物의 蒐集, 販賣 등 流通構造를 整備하여 生産者와 消費者의 利益을 圖謀하며 製材所와 加工工場 등 木材關聯産業을 育成하는 한편 山林景觀을 利用한 短期所得事業도 推進하여 山地를 經濟的으로 活用토록 하며,

山林을 所得對象에서 投資生産對象으로 政策을 轉換, 經營이 不振하거나 能力이 없는 山林에 對하여는 山主協業体, 山林組合, 篤林家, 林業後繼者 等을 育成하여 山主持分 30% 이내 (現在10%)에서 山主와 代理 經營者가 自律 決定하는 方式의 委託 經營을 誘導하고, 奧地에 分散된 國·公有林은 마을單位 山主協業体 등에 分收林으로 設定해주어 經營케 할 方針이다.

委託經營이나 分收林 設定에 不應하는 放置 山林에 대하여는 代執行 施業은 勿論 財産稅를 重課토록할 計劃이다.

이밖에 開發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造林, 育林, 林道施設, 裝備購入 等의 財政, 金融支援과 協業体 組織運營, 經營指導, 行政節次 代行 等 最大限의 支援을 集中토록 할 計劃이다.

山地開發 = 經濟優位 原則으로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需要에 副應

山林廳은 그동안 山地利用計劃을 傾斜度와 立木度를 기준으로 保全林地와 準保全 林地로 區分 利用하여 왔으나 이는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地域社會 與件 變化에 맞는 土地 需要 充足에 未洽하였다고 判斷, 이를 再調整, 補完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첫 단계로서 農村振興廳의 토양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경사도나 立木度에 관계없이 농사에 적합한 땅이면 準保全 林地로 풀어 개발을 許容키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都市 근교 保全林地라 하더라도 山林을 훼손치 않고 山林景觀을 利用한 보건, 휴양 위락시설을 소규모로 설치하는것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 한다.

特히 제3차 山地 資源化 計劃을 樹立함에 있어 準保全林地에 대하여는 營林計劃 制度의 廢止 또는 申告로 가름하도록 하는등 行政節次를 대폭 간소화할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段階로 '90 - '93 까지 4個年에 걸쳐 保全林地의 精密調査를 實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를 再調整하고 保全林地에 대하여는 보다 集中的인 투자로 山林을 育成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이다.

水害復舊用 緊急 伐採許容

山林廳은 1987年4月20日字로 木材수급과 木材價格의 安定을 爲하여 私有林의 生立木 伐採를 一切 中止시켰으나,

이번에 예기치 않았던 태풍과 폭우로 因하여 一部 地方에서는 가옥과 농경지가 破損 또는 流失되는등 不可抗力的인 재난을 당하여 木材가 緊急히 소요될 것에 대비, 2㎥ 이내의 自家用材 伐採를 許容하여 災害復舊의 신속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育林으로 資源造成

참새捕獲 許可制度 改善

참새의 서식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效果的으로 救濟하므로서 農作物 被害를 줄일 수 있도록 居住地 市·郡·區에서 捕獲許可를 받아 全國에서 捕獲토록 捕獲地域을 擴大하여 구제 效果를 높이도 록 하였다.

산림청은 최근 참새의 서식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참새를 效果的으로 구제하므로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포획 許可 制度를 改善하여 施行키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참새로 인하여 농작물에 被害를 입은자가 市·郡·區에 有害鳥獸 救濟申請을 하면 關係 公務員이 現地 被害調査와 救濟計劃을 樹立한 後 포획토록 許可를 해 주었으며 포획 許可申請은 반드시 포획하고자 하는 市·郡·區廳에 당해 市·郡·區 管內에서만 잡도록 하였었는 바 앞으로는 所持許可를 받고 소정의 수렵강습만 받으면 누구나 市·郡·區에서 유해조수 포획許可를 받아 全國 일원에서 포획 할 수 있도록 포획 地域을 全國으로 擴大하는 한편 포획 時期도 8月부터 다음해 2月末까지 農作物 被害時期가 아닌 때에도 잡을 수 있도록 하여 救濟效果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山林廳은 참새포획제도를 改善 施行하면서 다음 事項을 遵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새는 農作物에 被害를 주는 유해조수이기도 하지만 害蟲을 잡아 먹거나 잡초의 씨를 먹는등 益鳥의 役割도 함으로 함부로 濫獲하거나 許可를 받지 않고 잡는 行爲, 포획 時期가 아닌 때에 잡는 사람, 毒劇物을 利用하여 잡는 行爲등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됨으로 法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참 고

- 年度別 참새 서식 密度

(마리/헥타當)

年 度 別	'71	'76	'81	'86
마리수	0.2	3.4	4.3	4.5

1972年 금렵조치 이후 서식 密度 增加

- 適正 (基準) 서식 密度 2.5마리/헥타당)

山林(山地)의 資源化를 위한 多目的 山林生産

朴 泰 植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林學科)

韓國農業科學協會는 지난 8月7日 農村振興廳 대강당에서 "農業的側面에서 본 國土의 效率的 利用"이라는 主題로 심포지움을 開催한 바 있다. 다음은 서울大 農大 林學科 敎授이고 本會 顧問이기도한 朴泰植 博士가 발표한 要旨 抄錄이다.(편집자)

國土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山林은 國有林(20%), 公有林(8%), 私有林(72%)로 區分되어 山林의 大部分을 私有林이 차지하고 있는데, 私有林은 191萬名의 山主로 細分되어 있어서 그 經營狀態가 좋지 못하다. 그리하여 *ha*當 林木蓄積이 27㎥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大部分(80%)의 山林이 20年以下의 林木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年間 收穫量이 120萬㎥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一年間 木材 需要量(870萬㎥)의 84%를 海外에서 輸入하고 있으며 5~6億弗의 外貨가 消費되고 있다. 이와같은 外材輸入 趨勢는 점차 鈍化될 것으로 推定되나 2030年에 가서도 年間需要量의 50%以上을 輸入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山林蓄積이 적고 大部分의 山林이 幼齡林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山林에서의 主産物(木材)의 所得은 적고, 副産物의 生産額이 山林關聯産物總生産額의 80%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奇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山林生産物의 總額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山林副産物은 農用資材인 堆肥原料(35.0%), 飼料(20.5%), 綠肥(1.6%), 燃料(13.8%)로 構成되어 있어서 直接的인 農家所得으로 實現되지 않는다.

山林副産物중 直接的 農家所得으로 實現될 수 있는 것은 樹皮, 種實, 버섯, 山菜, 藥草等 많이 있으나 種實(9.1%), 버섯(5.4%)등이 實質的으로 所得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山林에서 直接的인 山林收入을 增加시키려면 現金收入이 될 수 있는 山林의 多目的生産(複合生産)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山林의 多目的生産에는 木材生産을 위시하여 木材副産物 및 山林關聯副産物, 山林公益增進 그리고 山林을 利用한 農畜産物生産活動을 다 包含시키는 것이 妥當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山林의 資源化는 圖謀된다. 즉, 山林의 資源化는 ①木材生産, ②農村林業生産, ③水源涵養, ④休養管理, ⑤野生動物保存, ⑥山林을 利用한 農畜産物生産活動등에 의하여 所期의 目的이 達成되어야 한다. 앞에 列擧한 ①~⑤項까지는 正常的인 本來 林業的山林開發施策을 積極的으로 推進함으로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시킬 수 있을 것이나 ⑥項의 山林을 利用한 農産的生産活動은 特別한 施策이 必要하다. 山林을 利用한 農畜産的生産活動은 두가지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는

데, 하나는 混農林業, 混牧林業등과 같이 林業的側面에서의 山林資源化를 위한 農畜産物生産活動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山地를 轉用하여 農畜産生産을 하는 山地資源化 施策이다. 前者의 경우는 山地를 林業的 側面에서 多角生産을 위하여 施策을 펴는 것이므로 別로 問題가 되지 않으나, 後者의 경우는 山地를 林業用이 아닌 農畜用으로 轉換하여 生産을 하는 것이므로 特別한 對策이 必要하다. 山地를 林業用으로 使用할 것이냐 農畜用으로 轉用할 것이냐를 論할 때 投資收益率을 計算하여 어느 分野가 有利하므로, 有利한 分野로 山地를 利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主張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公正한 比較優位를 알려면 똑같은 經濟的 條件 아래에서 比較되어야 한다. 林業投資收益率을 計算할 때 自由木材輸入으로 形成되고 있는 市場價格을 基準으로 하는 反面, 農畜産物生産의 收益性은 農畜産物의 輸入을 規制함으로서 形成된 價格 다시 말하면 國際價格보다 몇倍나 비싼 市場價格을 基準으로 하여 計算된 收益性을 가지고, 서로 比較하여 前者보다 後者의 경우가 有利하다는 主張을 하는데에는 理論的 妥當性이 缺如되고 있다.

한편 林業의 경우에는 經濟的 利益外에 計算이 不可能한 公益的 利益이 經濟的 利益보다 몇倍나 크다는 것이 證明되고 있으므로 이 점을 考慮해 넣어야 한다.

國土의 綜合開發計劃은 經濟的 側面만을 考慮해서 樹立될 수는 없고, 食糧의 安定的 供給, 國民의 便宜, 産業發展, 國土保存과 國防的 必要를 考慮하여야 하므로 占有比率이 가장 많은 山地의 一部는 農畜用地, 産業基地, 住宅用地로 轉換되어야 한다는데는 異見이 없다. 다만, 어떤 山地가 轉用될 것이냐 하는데 對하여는 意見이 다를 수 있다.

이제 林業과 競合關係가 있는 一次産業인 農畜用으로 山地轉用을 計劃할 때 留意할 事項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增加하는 將來의 木材需要에 對한 供給과 山林의 公益增進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準保全林地(相對的 林地)로 區分된 131萬*ha* 以外의 山林을 他用途로 轉換하는 計劃을 해서는 안될것이다.

2) 生産與件이 不利한 山間 農耕地는 廢農된 후 나무를 심는 傾向이 있으므로, 農地擴張을 위한 山地開墾은 愼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3) 高冷地 菜蔬栽培는 그 面積이 限定되어 있고 다른 選擇的 次善의 方法이 없으므로, 標高 700 ~ 800*m* 以上의 山地開墾이 計劃되어야 할 것이며, 養蠶은 平地에서의 農藥으로 因한 被害를 減少시키기 위하여, 勞力供給이 可能한 部落附近 準保全林地에 뽕나무를 심어 無公害 桑葉을 利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草地造成과 放牧을 위한 山地利用은 要存國有林과 林業專用的 林地로 區分된 山林에서는 計劃되어서는 안된다.

5) 粗飼料生産 問題를 山林에서만 解決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논에서의 飼料作物의 二毛作 栽

培, 볏짚軟化加工에 의한 飼料化등이 施策에 의하여 問題解決을 아울러 圖謀하는 것이 要望된다.

6) 山地草地造成에 있어서 指摘되고 있는 事項은 平野地의 山地는 所有가 細分되어 있고, 地價가 高價일 뿐만 아니라 山地肥沃度가 낮아서 土地買入節次가 複雜하고 資本이 많이 必要하며 生産性이 낮아 經濟性이 適切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와같은 隘路事項은 草地造成用 準保全林地를 集團的으로 購入할 수 있는 法的 制度를 마련하고 林地買入에 對해서는 높은 補助와 融資를 해주며, 開墾한 草地에 對하여는 徹低한 肥培管理를 하므로서 問題를 解決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山林의 機能과 稅制의 衡平

康 大 鉉 (林政硏究會)

우리世代가 사는 오늘은 現代가 벌써 舊代가 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폭발적인 變化의 時代에 살고 있다.

이처럼 急變하는 現代産業 社會發展에 適應力이 뒤따를 수 없으리 만큼, 우리 生活의 量과 質을 바꿔놓고 있으므로 언제나 현상의 固定은 쇠퇴로 기울뿐, 恒常 끊임없는 改革만이 쇠퇴를 막아내고 急變하는 現代化에 適應은 물론, 國民的 慾求 또한 充足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다 긴 眼目과 숨결로 우리林業分野에서도 새로운 發想과 槪念의 創出이 끊임없이 要求되는 때인 만큼, 現實에 安住하거나, 固定觀念에 젖어 消極的이고 방관적인 姿勢를 取해온 지난날의 수치스러움 일랑, 이제 말끔히 씻어버리고, 보다 새로운 次元에서 革新의 主役으로 탈바꿈해 나아가는 것만이 賢眼의 發現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의 念願이기도 한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經濟는 어느程度 成熟段階에 이룬만큼, 이제 視野를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온國民 모두의 生活은 물론 各 分野에서 보람과 價値를 골고루 實感케 하는 補償的 行政이 돌아나야 할때인 것이다.

지난 날에 편견 아니면, 一方的인 强要만의 結果가 오늘 날 國民이 要求하는 責任의 함수를 体質化 하지못하고 社會의 不均衡과 産業間의 격차를 招來케 하므로써 富益富 貧益貧이라는 겨래의 숨겨진 噴怒는 稅制의 衡平에도 不滿이 매우 크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事實이다.

어느時代 어떤社會을 막론하고 稅制의 衡平이 어긋날 경우, 惹起되는 産物이 곧 그 時代와 그 社會의 不合理한 矛盾현상으로 나타나듯이 지금의 우리 山林 林業關聯 稅制만 보더라도,

오늘 날과 같은 高度産業 社會에서 山林資源 造成은 곧 全國土의 資源化 一環策으로 보다 豊饒로운 國民生活과 環境을 보다 쾌적하게 淨化해주는 唯一한 公益産業 임에도 불구하고,

林業은 投資회임期間이 長期性이고, 극히 低收益性이며, 山林經營 規模 또한 零細性을 免치못하

고 있는등 林業經營上 지극히 어려운 林業的 特殊性을 國家的 次元에서 稅制上으로도 마땅히 勘案해야 하고도 남음이 있으련만 마치 눈앞에 보이는 나무만보고, 그것을 있게한 보이지않는 깊은 뿌리와 그숲을 보지 못한데서 비저진 愚의 하나가 山林, 林業關聯 稅制이며, 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바 없어 轉換期에 살아가는 아픔을 달래주기는 커녕, 오히려 無關心속에 度外視 당하는 感마저 없지 아니하다. 마치 失踪된 林業稅制라고 해도 무방하리 만큼, 踏步상태에 머물고 있어 급기야는 林業不在 현상까지 招來케 하므로서 우리나라는 全國土의 67%가 山林地帶이면서도, 해마다 林産源資材 輸入量이 漸增 하기만 하는 矛盾된 奇현상이 持續되고 있는것이다.

또한, 國民生活에 보이지 않은 附加價値를 無限大로 創出해 내는 우리의 山林이, 예로부터 天惠의 條件이 具備되여 있는 自然 그대로, 山水의 順逆과 江山의 順逆에서 地德을 잃치 않은, 秀麗한 江山이여서, 우리民族은 그런 우리의 環境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우리民族文化를 創出해 냈고, 또 꽃피워온 優秀한 기상을 지닌 보금자리 였으나,

오늘날 高密度 人口와 高度産業 社會라는 現代化 過程에서 無分別한 國土의 破行的 變化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自然淨化 매커니즘에 의한 自淨能力에 平衡이 깨어져 山紫水明이 山染水汚이 되고, 마침내는 生態系의 破壞현상 마저 심각하리 만큼 위태로운, 環境으로 바뀌워 가는데도, 現代人의 意識構造는 變함이 없이 아직도 舊態依然한 思考方式 그대로 固定觀念에 안주한 나머지 變遷하는 社會環境에 時代的 適應力 마저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들 中에 하나가 山林, 林業稅制이기도 한것이다.

이처럼 未及한 山林, 林業稅制를 깊이있게 잘 헤아려서 이에 相應하는 果敢한 助長的 施策의 配慮가 우선 先行되어야 할것이며, 또 國家의 租稅体系上 林業分野의 稅制에 있어서도 强力한 助長施策의 側面에서 보다 實效性이 깃든 革新的 諸般措置 또한 뒤따라 이루워져야만 한다는 것은, 곧 現代化 文明이 現代人을 부추기고 몰아 붙이는 必然的인 行路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現代社會나, 時代的 側面에서도 그러하겠으나, 國家的, 國民的 次元에서 보더라도 山林이 지니고 있는 經濟的 機能發揮는 물론, 이에 못지않게 公益的機能 또한 無限大로 發揮할 수 있다는 데에 보다 더 큰 意義가 內包되어 있다는 事實을 分明히 깨달아야 할 때다.

끝으로, 山林 林業은 分明히 私益보다 公益이 優先해야 하고, 그 效用 또한 公益比重이 더 크고 많으니 만큼, 林業稅制 역시 山林의 機能에 가름할 수 있는 衡平과 合理性을 바탕으로한 劃期的인 特段의 措置가 不可分의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므로, 山林 林業關聯 稅制에 關한 限, 더 늦기전에 合理的이고 革新的인 改善策이 강구되여 施行케 하므로서 온 겨레의 삶이 모두 平安하고, 幸福하게 希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

올해 育林의 날 行事 다채롭게
汎國民的 育林雰圍氣 造成

〈 青少年 育林祭, 育林세미나, 育林硏鑽會 開催 〉

山林廳은 오는 11.17 ~ 11.13까지 일주일간을 育林週間으로 設定하고 汎國民的 育林運動을 展開키로 하였다.

山林廳은 매년 11月 첫째 토요일을 育林의 날로 정하고 育林行事를 實施하여 왔었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汎國民的 관심을 불러 이르키고 育林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종전의 단순한 育林行事만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 부터는 青少年 育林祭, 育林세미나, 育林硏鑽會등 부대 行事를 다채롭게 가질 예정이다. 금년은 그 첫해로서 시범적 開催後 '88부터는 도별로 윤번제에 의한 地域的으로 특색있는 行事를 開催할 것을 檢討하고 있는데 첫번째인 올해의 주요 行事 計劃內容은 다음과 같다.

⊙ 青少年 育林祭

○日 時 : '87.10.25 (日) 10:00 ~ 15:30

○場 所 : 광릉 시험림내

○參加對象 : 서울·京畿地域 初中高生外 유관기관 (200名)

○行事內容 : ·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 青少年 對象의 간단한 게임 및 오락

· 수목원 및 박물관 견학

※ 審査評價 施賞

⊙ 育林세미나

○日 時 : '87.10.25 (日) 10:00 ~ 16:00

○場 所 : 광릉 산림박물관 (시청각실)

○主 題 : 育林과 관련된 주제

○行事內容 : · 세미나 (개회식, 주제발표 및 토의) -본회 회원 발표

· 박물관 및 수목원 시찰

○行事參與 : 250名 (학계 40, 篤林家 40, 山林組合長 141, 유관기관 29)

⊙ 育林研鑽會

○日　　時 : '87.10.30 (金)　10:00 ~ 16:30

○場　　所 : 강원도 평창군 봉평협업체 지역

○行事內容 : · 협업체 사례발표

· 機械作業 示範 : 伐木, 集材, 運材

· 山林作業用 器具, 機械 전시

· 育林作業연시 : 천연림보육 및 간벌작업

※ 審査 評價 施賞

· 育林作業實施 : 參加者 全員

○行事參與 : 270名 (篤林家 100名外 山組, 協業体, 技能人 作業團, 其他 유관기관)

※ 行事參與者에게는 交通편 중식 및 記念品 提供)

林業界 動靜

○ 鄭埰鎭 山林廳長은 지난 7.18부터 水害地域과 山사태 復舊 등 독려차 慶南地域을 필두로 전국 주요 山林피해지역 순방에 동분서주,

○ 第3次 山地賢源化 計劃 樹立을 위한 懇談會 開催 鄭埰鎭 山林廳長은 지난 7.22 本廳 幹部들과 本會 韓榮錫 會長을 비롯 傘下 團体長과 林業界 元老 人士들을 招致 懇談會를 갖임.

○ 山林廳 水害復舊 일손돕기 : 鄭埰鎭 山林廳長 外 職員 150餘名은 지난 7月30日과 8月2日2回에 걸쳐 충남 논산군과 부여군에서 水害 復舊 일손을 도움.

○ 山林協業体 任員 및 지도소장 46名은 오는 9月3 ~ 9.5日까지 山林박물관, 양평, 평창군 관내 協業体와 임업기계 훈련원등 임업 선진지를 견학할 計劃

○ 山林廳 헬기 水害地域에 支援 : 山林廳은 1次로 헬기 3대와 유조자 3대를 집중 水害를 입은 忠南地域에 벼 病虫害 방제를 위하여 8.6 ~ 8.14까지 9日間 支援하였으며 2대를 서천, 부여군에 추가지원 수재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協會費納入案內

計座番號

○	서울신탁은행 :	19501 - 84009872
○	농협중앙회 :	001 - 01 - 025926
○	국민은행 :	093 - 24 - 0025 - 624
○	우체국 :	011809 - 001478012

林産物 價格動向

⊙ 主産物

木材 : 8. 4. 現在
合板 : 8. 4.

單位 木材 : 원/㎥ (附加稅包含)
合板 : 원/板 (〃)

區分	規格	價格			對比 (%)		備考
		前年同期	前期 (5)	當期 (6)	前年同期	前月	
○國內原木							
陸松	中徑木 (中品)	74,000	74,000	74,000	0	0	서울 都賣價
참나무類	〃	66,000	66,000	66,000	0	0	〃
○導入原木							
羅王	馬來産 SQ	131,330	131,330	131,330	0	0	仁川, 釜山 群山
美松	헴 록 J	79,000	79,000	79,000	0	0	都賣 平均價
○製材木							
羅王	4.5×9.0×2.7	248,000	248,000	248,000	0	0	서울, 釜山, 仁川
美松	8.5×8.5×2.7	133,000	133,000	133,000	0	0	工場渡 平均價
陸松	3.9×5.1×2.7	114,000	114,000	114,000	0	0	서울 工場渡價
○合板							
工場渡	3.6-4×1,200×2,400	3,021	3,172	3,172	5	0	釜山, 仁川, 群山 地域 平均價
都賣	〃	3,138	3,288	3,288	5	0	서울, 釜山, 仁川
小賣	〃	3,213	3,388	3,388	5	0	群山地域 平均價

⊙ 副産物

品目別	單位	價格 (원)			比率 (%)	
		86. 7月	87. 6月	87. 7月	同期對比	前月對比
밤	원/kg	1,222	960	833	68	87
잣	〃	4,400	3,066	2,933	67	96
호도	〃	6,000	4,777	4,000	67	84
대추	〃	6,222	12,500	20,000	321	160
생표고	〃	1,250	2, 50	1,500	120	67
건표고	〃	13,333	16,666	16,000	120	96
느타리	〃	1,250	1,500	1,300	104	87
고사리	〃	(釜山) 12,500	(釜山) 15,500	(釜山) 15,500	124	100
더덕	〃	-	4,000	5,000	-	125
은행	〃	3,733	(釜山) 5,066	(釜山) 5,066	136	100

※ 每月 15日 基準 서울京東市場 中品 都賣價格 (kg當 價格)